

온라인 쇼핑 '11월 대전쟁'

대규모 할인행사…시장 주도권 전쟁

11번가, 연중 최대 혜택 '십일절' 포문
위메프는 특가데이 1주년 화제상품전
이베이도 G마켓·옥션 통합 프로모션



유통

온라인 유통 기업들이 11월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선다. 통상 유통업계의 연중 최대 성수기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선물 수요가 몰리는 12월이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유통업계는 이를 좀 더 앞당겨 11월부터 치열한 시장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SK플래닛 11번가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십일절 페스티벌'(사진)을 열고, 연중 가장 큰 혜택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일년 중 11월에 매출이 가장 높다. 브랜드 이름에 들어간 숫자를 앞세워 11월에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월별 매출비중은 11월(10.0%)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성수기인 12월(9.3%), 7월(9.0%) 순으로 나타났다. 11번가는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모션을 11월에 준비하고 있다. 우선 10월31일까지 전야제 행사를 열고 다양한 할인 혜택과 경품을 제공하는 한편 페스티벌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미리 발급한다.

위메프는 '특가데이' 1주년을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1월 11일 '1111데이' 때 '그때 그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매월 특가데이에서 큰 호응을 받은 화제의 상품을 같은 가격에 재판매한다. 11월부터 시작하는 행사 참여 제품은 무료 배송한다.

위메프는 본 이벤트에 앞서 '1111데이 실전 연습' 행사도 진행한다.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특가데이 못지않은 파격가 상품을 대거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11일 1111데이를 시작으로 매달 월과 일의 숫자가 일치하는 날짜에 맞춰 시간대별 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특가데이 행사를 열어 매출과 거래량을 크게 늘렸다. 10월에도 1010데이를 통해 소셜커머스 최초로 일거래액 2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베이코리아는 11월1일 브랜드 빅딜 행사를 선보인다. 그동안 G마켓과 옥션이 각각 별개의 세일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통합 운영하는 전사 차원의 대규모 프로모션이다. 이에 따라 브랜드와 할인혜택도 역대 할인 행사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게 이베이 측 설명이다. 400여개 브랜드 빅딜을 마련해 신제품 및 스테디셀러를 단독 특가에 선보이고, 매일 최대 규모 할인율의 타임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31일까지 스마일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5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전 이벤트도 벌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3~27일

코스피지수	2496.63	▲	+6.58
코스닥지수	689.97	▲	+14.11
日 닛케이 지수	2만2008.45	▲	+311.8
中 상하이 종합	3416.81	▲	+36.11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64	▲	+0.134
환율 (원 · 달러)	1131.00		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6049.90	▼	-348.16

지수는 27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경제현장.jpg

"피카츄와 함께 핼러윈 즐기자"



모델들이 29일 포켓몬 인기 캐릭터인 피카츄가 핼러윈의 상징인 호박모양 모자를 쓰고 있는 '핼러윈 피카츄 인형'(1만원)을 소개하고 있다. 1000개 한정 판매로, 호박모자는 탈부착이 가능해 아기자기함과 귀여움을 더한 게 특징이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세븐일레븐

KT "평창 5G 올림픽 준비 완료"

시범서비스 5G 망 구축 마무리

KT는 27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평창 5G 센터'에서 삼성전자,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평창 5G 시범망 준비 완료 보고회'에서 2018년 평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KT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통신 파트너로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한다. KT는 6월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이날 5G 시범망과 삼성전자의 5G 단말기를 연동해 대용량 영상을 전송하는 서비스 시연도 했다. KT는 올림픽 개막까지 100여일 동안 네트워크 인프라 최적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5G 시범망에는 자동 장애 예측과 복구 기능이 적용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오늘의 얼굴

워렌 버핏 "비트코인은 거품"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사진)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거품"이라며 가상화폐 열풍에 우려를 밝혔다. 버핏은 최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리는 연례 질의 응답 세션에서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정말로 거품이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비트코인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어서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비트코인의 적정가를 전망하는 시도 자체가 거품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버핏은 2014년에도 비트코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기루"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이며 전문가들이 가격 급등에 대한 찬반 격론이 펼쳐지고 있다. 버핏과 달리 어스워스 다모다란 미국 뉴욕대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닌 진정한 통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즈 TALK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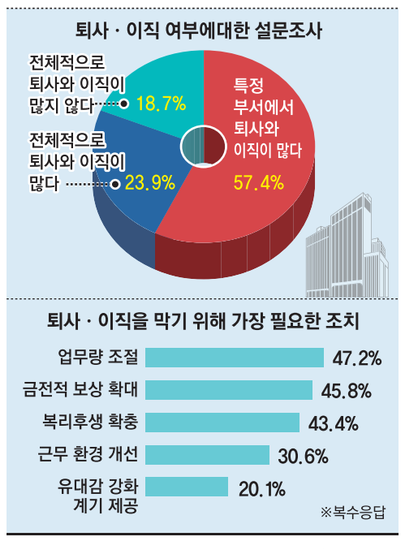
● **"국내 은행이 이자 장사만 하면서 글로벌 은행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도전하면서 은행산업의 미래로 증권, 보험 등도 겸하는 유니버셜뱅킹을 언급)

● **"셀트리온 목표주가 8만원"**(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목표주가로 27일 17만5000원인 시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해 논란)

데이터 경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특정부서에서 퇴사 · 이직 많다"

잡코리아가 최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373명을 대상으로 부서 인원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4%가 '특정 부서에서 퇴사, 이직이 많다'고 답했다. '전사적으로 퇴사, 이직이 많다'는 응답도 23.9%로 나타났다. 또 퇴사, 이직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업무량 조절(47.2%), 금전적 보상확대(45.8%), 복리후생 확충(43.4%), 근무 환경 개선(30.6%), 유대감 강화의 계기 제공(20.1%) 등이 꼽혔다.



편집 | 신하늬 기자

SK텔레콤 준, 이제는 키즈 웨어러블도 AI

SK텔레콤은 '쿠키즈 워치 준3'(사진)와 '준 스페셜 에디션'에 AI플랫폼 '누구'를 적용한 차세대 서비스 '준x누구'를 30일 선보인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음성으로 전화를 걸 수 있다. 날씨와 일정, 한영사전, 위키피디아 검색 등의 기능도 음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쿠키즈워치 준3와 스페셜 에디션 이용 고객 12만여명(9월말 기준)에게 무선 업데이트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직접 단말 설정 화면에 들어가 수동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도 있다. 업데이트를 한 뒤 부모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쿠키즈워치 애플리케이션에서 '누구 활성화 기능'을 켜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어린이 음성인식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 음성인식 성공률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삼성전자 진공청소기 '스타워즈 에디션' 출시

삼성전자는 영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개봉을 앞두고 진공청소기 모델 파워봇과 파워건의 스타워즈 에디션(사진)을 11월6일 국내에 출시한다. 스타워즈 제작사 루카스필름과 협업한 스타워즈 에디션에는 영화 속 인기 캐릭터 다스베이더와 스톰트루퍼를 적용했다. 청소를 할 때 다스베이더 모델은 다스 베이더의 숨소리와 함께 영화 속 그의 테마음악인 '제국의 행진'이 나오며, 스톰트루퍼 모델은 '렛츠 고'라는 대사와 '스타워즈' 메인 테마가 흘러나온다.

스타워즈 에디션은 출고가 기준 파워봇 다스베이더 모델이 79만9000원, 스톰트루퍼 모델이 69만9000원이고, 파워건 스톰트루퍼 모델은 99만9000원이다.



김명근 기자

그녀를 위한 매너…이젠 안심하고 '사랑'하세요

'신소재 콘돔' 안셀 라이프스타일

유럽 호주 등서 점유율 1위 메가 브랜드
특화된 소재로 콘돔시장 가파르게 성장
내달 유통망 완료…한국시장 본격 공략

춘추전국시대를 맞은 국내 콘돔 시장에 최근 글로벌 브랜드 안셀이 가세하면서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국내 콘돔 시장은 그동안 영국 레킷 벤키저의 듀렉스가 최고 점유율 40%까지 차지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지난해 레킷 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장본인 옥시의 모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시장에서 거의 퇴출된 상태다. 시장 리딩 브랜드가 사라진후 뚜렷한 강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안셀이 라이프스타일(사진)을 한국에 론칭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셀의 한국 진출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됐는데 혼전을 빚고 있는 시장 판도를 고려해 고품질 제품을 통해 국내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셀 라이프스타일은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는 메가 브랜드다. 얇은 두께에 치중하는 아시아의 트렌드와 달리 특화된 부드러움이 강점인 특수 콘돔으로 유명하다. 센서티브, 제로, 스킨-오리지널, 스킨-엘리트 등 4종의 모델 모두 특허를 받은 신소재(폴리이소프린) 제품이어서 시장에 새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국내 콘돔시장, 성장 잠재력 무궁무진

안셀 라이프스타일은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공개한 지 한 달여 만에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에 높은 관심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 온라인 유통망은 물론 대형마트, 편의점, 약국 등 오프라인으로 판매망을 확대했다. 11월 중 유통망 확보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는 게 회사 측 소개다.

국내 독점 판매 기업은 30년 역사의 수출입 전문 기업 신행E&T. 콘돔 생산 공장 기반 플랜트 수출을 계기로 콘돔 사업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김승현 신행E&T 대표는 "안셀 본사 측은 한국 콘돔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고품격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며 제품 판매뿐 아니라 한국인의 건강한 성생활 개선을 위한 캠페인 역시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